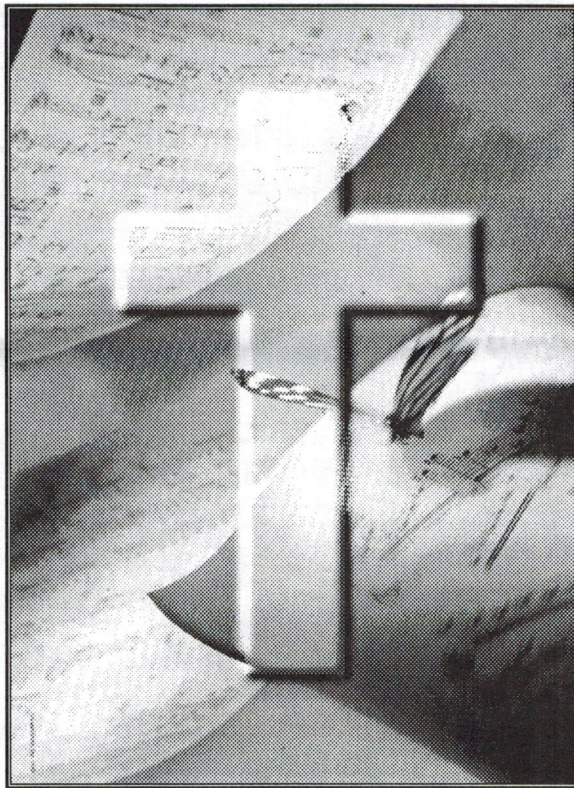


제 1 회

교회 성가대 연합 세미나



주 최



캐나다한인교회음악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CANADIAN CHURCH MUSIC

- 일 시 : 2000년 7월 8일 (토) 오후 7시
- 장 소 : 토론토 소망장로교회
- 강 사 : 최혁 목사 (미 뉴저지 포도나무교회 담임)

“성가대원 및 교회음악인 여러분!”



채완수 회장 (캐나다한인교회음악협의회, 가든교회 성가대 지휘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
하며 즐거운 소리로 궁교히 노래할지어다 <시편 33:1-3>”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를 인정
하시어 주님의 구속역사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인
간의 예술 미학을 뛰어 넘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제단 앞에 설
수 있는 찬양의 사역자들로 삼아주심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속
에서 우리의 인성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는 속죄의 고백과 항상 새로운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고 전파하는 일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중요성에 반해 인간적인 생각은 자신감의 결여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사
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 극복이 가능하고 능히 자유하여 기쁨으
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가대원 및 교회음악인 여러분! 이제 신약의 시대에, 아니 새천년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목소리 다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세상의 사탄음악에 대하여는 이제 과감히 포문을 열어 무차별 궁
격을 하고 완전 승리하는 주님의 찬양군대로써 위력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없어 망하
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합시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세미나가 가끔 방황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재충전하고 교회음악의 본질에
직접 접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고단한 이민생활 속에서도 찬양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
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특별히 우리를
위해 멀리 미국에서 오신 감사 최혁 목사님과, 토론토 최초로 열린 제 1회 교회 성가대 연합 세미나를
위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소망교회와 당회장 서인구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축하의 글과 기도를 올려주
신 토론토 한인 교회 협의회 회장 소창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인의

The World People

인 9월호 통권60호 1999년 9월 1일 발행/등록 94년 8월31일 3중우편물 INC 발행: 43 Northgate Cres., Richmond Hill, Ont., L4B 2K8
Tel. (905)780-8500 Fax. (905)770-6322 발행인겸 편집인: 오승환

늘 앞서가는

세방/신라

전세계 모든 항공권 판매
호텔, 렌트카, 기차 예약

세방

721 Bloor St. W. Toronto
Tel: (416)536-5530
Fax: (416)532-2716

신라

"광고(Sign)는 사업의 얼굴입니다."

싸인뱅크

상업광고 디자인

- 모든 간판 자체제작
- 기획 시공 전문업체

조영민(Simon Cho)

461 Brock Ave. Toronto, Ont
B: (905)856-5900 Fax: (905)856-6400
Pager: (416)403-6242

TPA Invest



Tel: (416) 1-800-1-3000
뮤추얼 펀드 / 주식

세계개혁교회협의회 소속 뉴욕칼양대학&신학대학원 토론토 캠퍼스(가든교회 내 / 이사장 이정석 박사)가 이달 18일 개강한다. 이 학교는 석사과정과 교회음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취득 학점은 타 신학교와 교류가 가능하다. 개교기념으로 교수음악회(10일/가든교회)도 개최한다. <사진: 이재호>



TAEKWONDO FEDERATION Since 1971

德武館

손명수 8단 호신술 최고권위자
존경심 ● 자신감 ● 인내심 ● 명예심
사범코스 (한인 특별 우대)



1111a Ave. Dundas W. Toronto, Ont. M5T 2E2
TOWN Tel: (416) 599-3808

미샤지 미용실
 90 Dundas St. W. Mississauga
 ☎ (416) 270-9117
 (2) 11:15AM - 9PM

Cut	\$15	영구눈썹	\$80
염	\$40	아이라인	\$160
스트레이트염	\$50	립라인	\$180

맛사지, 발청소, 기미, 점
미용사구함!
 Cellex-C 약장품 · 종 합약장품 판매점

중

중고서판

**곽규석목사 초청 부흥집회
30일 평안성결교회**

70년대 인기 코미디언으로 활동했다가 현재 뉴욕 한마음 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곽규석 목사 초청 부흥집회가 오는 30일부터 5월2일까지 스카보로 소재 평안성결교회에서 열린다. 곽목사는 자신의 파노라마같은 인생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있기까지를 간증을 통해 설교할 예정이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 5월2일(일) 오후 2시, 6시.
 문의: (416)439-7945.

**이연길목사 말씀사경회
23일 밀알한인교회**

델라스 빛내리교회에서 시무 중인 이연길 목사의 말씀사경회가 오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밀알한인교회에서 개최된다. 주제는 「말씀과 신앙」, 「기도와 경건」, 「부활과 교회」, 「다니엘의 결단」, 「성령과 사역」 등이다. 시간은 오후 7시30분. 주일 오후 1시, 2시 30분. 26일 오전 10시에는 목회자세미나와 사모세미나가 개최된다. 회비는 1인당 \$20.
 문의: (416)226-4190. 주소: 172 Drewry Ave. North York.

미주한미자라교회 캐비닛

토론토교회 연합찬양을

10월말 성가대

**한국 소년소녀가장돕기 목적
교회음악지도자 모임도 결성**

그동안 일부 대형교회와 교단 중심으로 열려오던 성가합창제가 토론토의 전체 한인교회가 참여하는 연합행사로 거듭난다.

「99 토론토 연합찬양제」(가칭) 준비위원회는 지난 10일과 17일 가든교회서 두차례 모임을 갖고 오는 10월31일 연합찬양제를 개최기로 확정했다. 장소는 가든교회 성전.

발기인 대표와 참여교회는 2차 모임까지 한인석(갈보리), 한경호(새문안), 이광수(산돌), 김재익(큰빛), 황환영(서머나), 박성진(순복음중앙), 천복희(필그림), 이미희(찬양), 김철환(밀알), 이상규(광강), 채완수(가든), 유인(시온성), 배영수(소망) 등 12개 교회다. 준비위는 그러나 행사 취지를 알리면서 토론토 한인교회 전체로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찬양제의 형태는 참여교회가 많아질 경우 연합성가대 찬양

외에도 독창, 중창, 연주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 수일에 걸쳐 열리는 페스티벌 형식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준비위는 밝혔다.

연합찬양제의 목적은 한국 소년소녀가장 돕기. 이 행사의 제안은 가든교회가 창립 10주년행사를 기획하면서 교회 자체행사보다는 교계와 사회를 위한 의미있는 행사로 만들자는 의견에서 비롯됐다.

발기인 채완수 집사(가든교회 음악감독)는 「고국의 경제위기로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들이 겪는 어려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한인교회들이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이 행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2차모임에서 총무(채완수), 기획(한인석), 홍보섭의(황환영)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나머지 분과와 연주곡, 연주순서 등은 3차모임에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준비위

교

조현정 변호사

■업 무 영 역
 이민·부동산·상업·가정법·유산상속법·민사소송·개인 상해법

45 Sheppard Ave. E #703 Toronto
TEL.(416)223-3500 FAX.(416)225-8751

Helen Cho 조현정변호사

ION •

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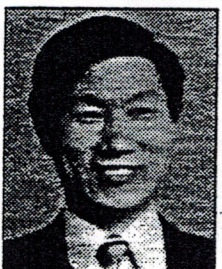
창제 확정

제의
적은
한국
등기
기르
서는
금은
들야
다.
있는
들의
음은
다.
회
다
르
었
는
이
의
다
로
다



각교회 성가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종/교/인/수/상



노하덕 목사
(서머나장르교회)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다. 강도는 집주인에게 「손들었」 하며 권총을 겨누었다. 주인은 왼손만 들었다. 「한쪽 마저 들었」 주인은 찌푸리고 말했다. 「오른팔엔 신경통이 있어 들 수 없소」 그러자 강도는 한결 부드러운 말씨로 이야기를 건네었다. 「신경통요?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이래서 두 사람은 피차의 신경통 증세며 괴로운 점이며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덧 강도는 자기 본래의 목적을 잊고 있었고, 주인도 긴장과 공포는 사라지고,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있었다(오 헨리의 단편소설).

강도나 신경통 환자나 서로의 공통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은 모두 위르가

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위르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랑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1~2)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는다. 민족의 배신자로 지탄받던 「삭개오」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 순간 그들이 받은 위르가 얼마나 컸을까? 위르의 잔치가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위르를 받을 수 있는 믿는 자들은 참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결국 이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르의 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신체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르하라고 명하신다. 위르는 병든 사람을 치료한다.

을 여신 것이다.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음이다. 무디선생에게 이런 일화가 있다. 무디선생이 살고 있던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나

Inaugural Faculty Concert



▲뉴욕천양대학 토론토분교 개교를 기념하는 교수음악회가 치난 9일 저녁 가든교회(정관목사)에서 개최돼 높은 수준의 찬양콘서트를 선보였다. 사진은 채완수씨의 지휘로 「살아신 주」를 부르고 있는 연합찬양단과 출연 교수진



한국 소년소녀가장돕기

'99 토론토 연합찬양제

'99 TORONTO PRAISE FESTIVAL

일시 : 1999년 10월 24일(주일) 오후 7시
장소 : 가든교회 대성전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 주최** '99 토론토 연합 찬양제 준비위원회
가든교회
- 주관** '99 토론토 연합 찬양제 준비위원회
- 후원** 한인교회협의회, 한국일보, 중앙일보
- 찬조출연** 영락 어린이합창단, 토론토 샤론 성가단,
토론토 장로성가단, 찬양대학 교수성가단
- 조직** 고문 / 이 상철 목사, 계 화삼 목사, 박 제훈 목사
준비위원장 / 정 관일 목사
- 참여교회** 가든교회, 길보리교회, 동부장로교회, 밀알교회,
새문안교회, 서머나장로교회, 성산교회, 소망교회,
시온성교회, 평안성결교회

자세한 문의 **홍무 채 완수** (416) 490-9060

대한기독교서회



'99 토론도



인간의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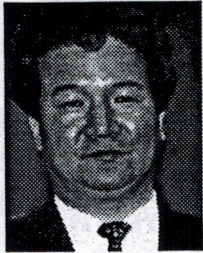
캐나다한인교회음악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CANADIAN CHURCH MUSIC
145 Song Meadoway, Toronto M2H 2V1 Tel : (416)493-4577

뉴스레터 NEW LETTER

April 29, 2000 / 창간호

창간호를내며



채원수
회장 /
가든교회
성가대 지휘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와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찌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회 연주할찌어다(시편33:1~3)

뉴 밀레니엄을 시작하는 우리 사회와 문화는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고도의 테크놀로지의 힘을 얻어 한층 가속도가 붙어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만큼 혼돈스러운 정도로 발달해 가고 있고, 우리의 기독교 문화도 다양한 부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음악도 신령과 진정함에 배속에서 일반적인 음악이 추구하는 예술미학의 차원을 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함께 무형의 제물로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체적으로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중요성에 반해 우리의 교회음악은 더딘 발걸음 속에, 일부 현대교회들이 부흥이란 이름으로 신도수 늘리기 위한 예배의 배경음악, 또는 성

령체험의 이입기를 위한 감정 도구기의 미학정도로 실제 인식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는 교회음악 중요성의 원칙에는 동의해주는 현명함과 너그러움을 발휘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정통교회에서조차 세상에 관심을 끄는 세속문화들이 몇가지의 웅색한 신학논리로 찬양으로 포장되고 있으며, 특히 목회자 중심의 한국교회의 교회음악인에 대한 제도의 모순성은 이미 수십년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의 '교회음악과'의 교육 목적에 따라 배출한 또는 배출할 이미 셀 수 없을 만큼의 교회음악인과 평생 음악적인 달렌트로 믿음으로 봉사하는 교회음악인들을 방황케하며 교회내의 위치는 단순 계약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적당한 음악봉사자들만 있을 뿐 순수한 면에서의 교회음악인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책임있는 팀 목회의 구조를 갖고 있는 서양 교회들과는 대조적입니다.

더우기 교회음악인마저 자칫하면 타성에 젖은 성가대(찬양대)운영과 자신의 개발 및 재교육의 투자를 게을리하고 교회음악 저작권의 무단 복사, 세속음악의 이디엄을 차용하는 등 귀로 들은 학습을 입으로 전하는 자신의 주관적인 논리를 펼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한 수위를 방관하고 지적만 하며 자가당착의 예고이즘에 빠져 수준 및 격을 논하는 음악인 등 우리교회음악의 현주소는 밝지못하나, 이러한 환경이 모두 개선된 후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기

에는 우리의 소명의 중요성은 매우 시급한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협의회의 목적은 취약한 환경에서 혼잡할 수 없는 일들을(교회음악인의 재교육, 연합세미나, 워크샵, 신성가개발에 따른 발표회, 성가집 출판, 성가곡 음반제작, 연합찬양제, 찬양전문 인터넷 방송개설, 등) 연합된 힘으로 교회음악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사명의 본질에 접근 해결하고자 함이며, 최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아래 몇몇 동지가 모여 시작한 "99, 토론토연합찬양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러한 계기로 거창한 「캐나다한인교회음악협의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이 없던 도저히 이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4월의 부활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같이 우리들도 썩어지는 작은 밀알이 되어 창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평생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동지들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안에서 연합하여 세상적으로나 하나님안에서 보기 아름다운 협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13:15)

캐나다 한인교회 음악협의회가 드디어 탄생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뉴스가 되긴했지만 뉴스레터 창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12일 오후 1시 33 Orfus Rd.에 위치한 서울관에서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교회음악에 관련된 직분자(지휘자, 반주자, 연주자, 음악목회자, 찬양사역자 등)들의 개발

과 친목, 연구 및 행사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이 조직은 회장 채원수(가든), 부회장 한인석(갈보리), 이상훈(평안), 총무 황환영(서머나)을 선출했고 정관체택을 했습니다. 한국, 중앙일간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된 이 모임은 앞으로 토론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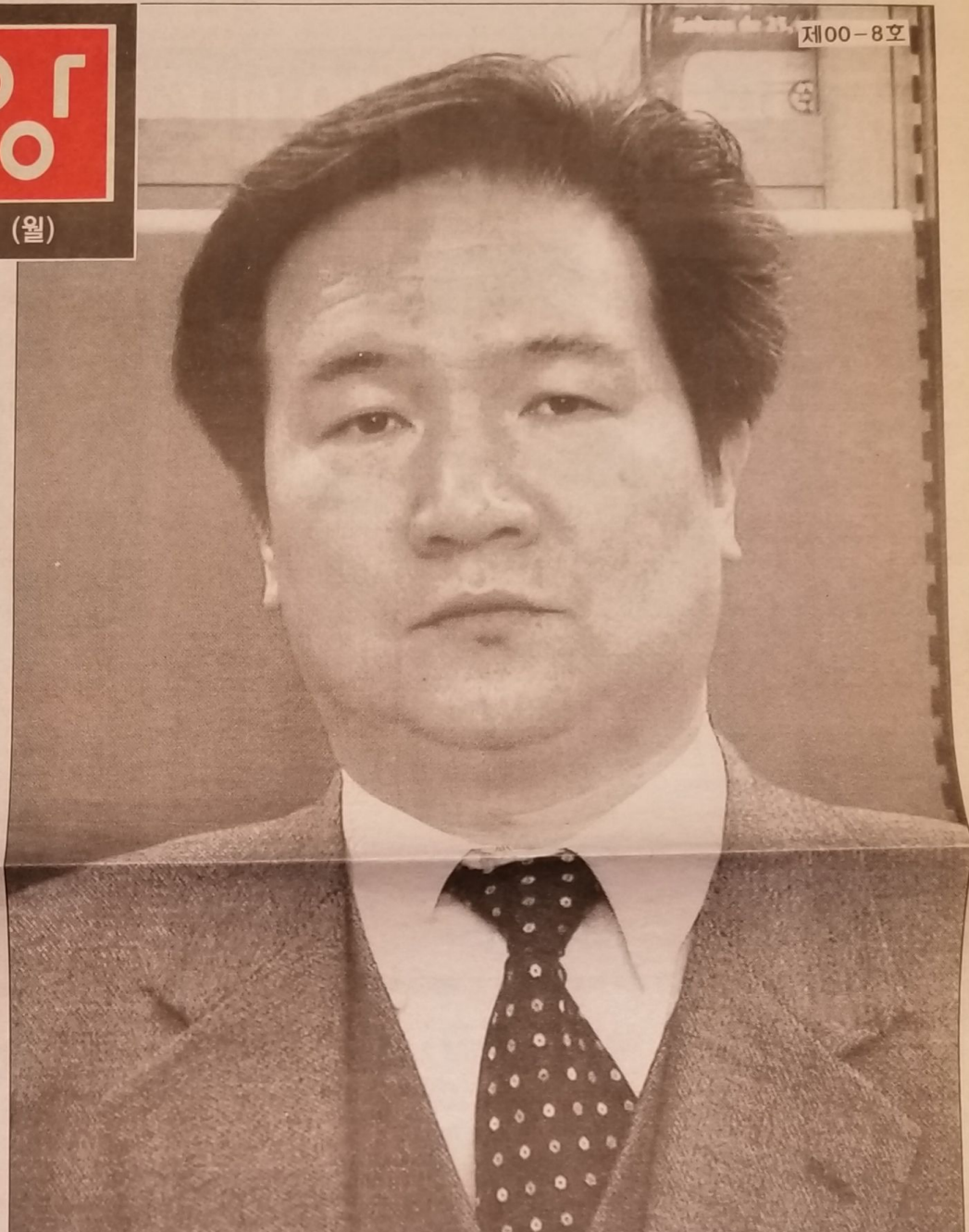
사회를 중심으로 찬양을 통한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며 아직도 참여하지 못한 각교회 음악관련자들을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416)231-7328 황환영 총무(주간 : 한국일보-787-1111 ext, 232)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중잉

32면 2000년 2월 28일 (월)

일요서울

중잉일보 제휴
The Korea Central Daily Section E



북파 무장공작원
강진규의 육필수기

이슈 추적

정형근 체포기도 사건

추
상
미
또 다시 벗었다

총연교회 김성관목사 피습사건 그후

“란제리를 입고 품재리”

「감각의 제국」 외설시비

12일 출범한 캐나다한인교회음악협회의회의의 채완수 초대 회장(가든교회 성가대 지휘. 임기 2년). 교음협은 교회음악 증사자의 연합된 힘으로 교회음악을 연구하여 개발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임. 연합찬양제를 비롯 성가집 공동구입 등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잉일보
http://www.joongangcanada.com
E-mail info@joongangcanada.com

결혼 사진
가족/인물
www.diafoto.com
(416) 663-8812
디아프 포토그래피
★ 예약필요

RADIATOR MUFFLER
엑스코어 자동차정비공장
• Mechanic Shop • Body Shop
• Muffler Shop • Radiator Shop
179 Rexdale Blvd. (at Kipling Ave.)
Tel: 747-1524 Fax: 747-9142

날 앞서는
세방여행사
721 Bloor St. W. Toronto
(416) 536-5530
Fax: (416) 532-2716
Toll Free: 1-800-268-5487

Tips 노동직 구함
General Labour
일반 노동직
(416) 667-9707 Mr. Kim

어느 대형 가구집보다 **1/3 이상 싸입니다**
매트리스 펴(주)
2050 Dundas St.E. (905) 275-4497
4884 Dufferin St. (416) 650-9889
5575 Yonge St. (416) 223-6684
1329 Kennedy Rd. (416) 615-1948

순수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수줍음의 감속이 나중 감반다.
자유공간 노래방
KARAOKE
☎(416) 534-2025
721 Bloor St. W. Toronto

경보석 주석회사
보석전문도매상
888-1133